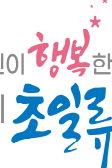
 인천광역시		보도자료		시민이 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	
배포일자	2023년 7월 19일(수) 총 2매				
담당 부서	에너지산업과	담당자	• 생활에너지팀장 김미경 ☎440-4341 • 담당자 구선미 ☎440-4342	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도시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8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 월 160원 인상·사용량 요금은 동결

- 9년만에 기본요금 840원 → 1,000원으로 160원 인상 -
- 공급설비 투자 촉진, 안전관리 위해 기본요금 인상 불가피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,000원으로 160원 올리고, 사용량 요금은 동결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. 용역 결과 1.77원/㎥의 인상안이 제시됐으나, 시는 1.46원/㎥ 인상하는 것을 반영해 주택의 기본요금은 세대당 160원 올리고(840원→1,000원),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는 최소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.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,11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 셈이다.

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동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, 용역 결과보다 0.31원/㎥ 적게 반영한 것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사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결과다.

인천시의 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이다. 기본요금은 수요가 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, 안전관리비,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, 고객센터 처우개선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.

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“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인상이 도시가스사의 공급 설비 투자,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” 고 말했다.

*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= 도매요금 + 소매요금,

도매요금 :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비용으로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

소매요금 : 민간 도시가스사가 일반가정, 사업체등 지역에 공급하는 비용으로
시도지사가 승인

* 도시가스 소매요금

주택의 경우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 2부요금체계,

그 외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사용량 요금을 부과하는 단일요금체계 적용